

국어 선생이 감히 영어 책을 쓴 까닭은?

영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수능 영어 빈칸 추론이 너무 어려워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 관계자 한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최 선생의 논리로 해설 한 번 해줘야 할 것 같애.” 라고. 그 말에 나는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년 어려운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습관처럼 영어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생 제자들이 토플, 토익, 텡스를 공부하면서 ‘영어 학원’ 다니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학원 선생님들이 글쓰기의 전개 구조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리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나에게 글쓰기 논리로 접근하는 법을 익힌 제자들에게 그런 수업은 너무 답답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토플, 토익, 텡스 문제도 분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어를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단 하나, ‘영어는 결국 국어다.’라는 점이다.

나의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영어도 국어의 글쓰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글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든, 논리적 글쓰기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그냥 ‘뜻풀이’와 ‘배경지식’으로 혹은 감으로 푼다고 알고 있다 보니 영어 역시 글쓰기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첫 문장에서 글 전개의 기준’을 잡아서 거시적으로 빠르게 독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학원 선생님들은 글쓰기 논리를 모른 채, 그냥 한 문장이라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최고의 교수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은 그것이 곧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다. 다시 한 번 슬픔을 감출 수 없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감을 잡지 못한 채 폭풍 속에 내던져진 조각배 같은 수험생들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비록 국어 선생이지만, 보잘것없는 강사이지만 이렇게 직접 펜을 들고 나섰다. 누군가는 건방지다고, 누군가는 너의 일이나 잘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올바른 교수법으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핀잔이나 비방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학원 강사라기보다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이렇게 한 권의 영어 책을 만들었다. 부디 이 책이 영어 공부가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03. 첫 문장에 시대나 시간이 나오면 ‘변화’에 주목하라. 빈 칸이 마지막 문장이라면, 주제 문장일 확률이 높다.

원문해석

지난 60년 동안, 기계식 공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만 있는 행동과 재능을 복제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더 많은 AI(인공지능) 종을 발명하면서, 우리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 중 더 많은 것을 내줘야만 할 것이다. 매년 내주는 일(체스를 둘 줄 알거나 비행기를 날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수학 공식을 발명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식만은 아니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올 30년(사실, 아마도 다음 한 세기)을 영구적인 정체성 위기 속에서 보내며, 계속 우리 자신에게 인간이 무엇에 소용이 있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일한 도구 제작자나 예술가 혹은 도덕 윤리학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실용적인 AI가 일상에서 가장 큰 이점은, 비록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겠지만 향상된 생산성이나 풍요의 경제학, 혹은 과학을 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래가 주는 가장 큰 이점은 AI가 인간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선택지 해석

- ① AI가 인간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 ② 인간도 AI와 같을 수도 있다는
- ③ 인간이 노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 ④ AI가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 ⑤ AI가 인간 지능의 쇠퇴를 보상할 수 있다는

03

Over the past 60 years, as mechanical processes have replicated behaviors and talents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what sets us apart.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we will be forced to surrender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Each step of surrender — we are not the only mind that can play chess, fly a plane, make music,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 will be painful and sad. We'll spend the next three decades — indeed, perhaps the next century —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If we aren't unique toolmakers, or artists, or moral ethicists, then what, if anything, makes us special?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arian AI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or a new way of doing science — although all those will happen.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_____.

*replicate: 복제하다

- ①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 ②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 ③ humans will be liberated from hard labor
- ④ AIs could lead us in resolving moral dilemmas
- ⑤ AIs could compensate for a decline in human intelligence

필수어휘

mechanical 기계식
surrender 내준다; 양도
supposedly 아마
decade 10년
permanent 영속적인

crisis 위기
continually 끊임없이
ethicist 윤리학자
utilitarian 실용적인
productivity 생산성

abundance 풍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liberate 해방시키다
compensate for ~에 대해 보상하다

HOW & WHY?

30초 논리

해석 3단 논리

과거 60년 동안, 인간만이 독특한 특성을 가졌다는 생각을 이제 변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의 대부분을 할 수 있거나 더 큰 생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의 가장 큰 도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관한 정의를 변화시켜준다는 점이다.

첫 문장 ‘Over the past 60 year (과거 60년 동안)’에서 **과거**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과거**’는 ‘**현재나 미래**’를 전제로 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과거의 상태가 현재나 미래에서는 달라진다는 점을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문장에서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인간만의 독특한(unique)한 특성**에 주목하면, 현재나 미래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즉, 중간쯤에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위기**’가 도래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빈 칸의 주어부**는 인간이 아닌 ‘AI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이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경제적 성장이나 과학적 발전의 측면이 아님을 앞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글의 주제는 AI와 인간의 특성(정체성)과 연관지어 완성**해야 한다. 따라서 예측한대로, **AI도 인간이 60년 동안 가졌던 특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인간만의 특성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제가 될 것이다. 그것을 AI가 주어인 문장으로 만들면, ‘**AI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정답

① 인간성 정의에 도움을 주다

첫 문장의 핵심과 연결지어 볼 때 이 글은 인간의 특성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글이어야 하며, 과거 60년 동안 가져왔던 관념과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가 AI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과 맥이 같다.

오답

② 인간들 또한 AI와 동일할 수 있다

이 글의 핵심은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AI도 인간과 동일할 수 있다’로 변형한다면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어가 AI가 되는 순간 논리상 정답과 가장 거리가 먼 선지가 되었다.

③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빈 칸 앞 문장에서 생산성 등의 특성은 가장 큰 이점이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AI의 특성이자 장점일 뿐, 인간의 정체성과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도덕적 딜레마

도덕에 관한 언급이 지문에 없으며 논리적 범주가 다르다.

⑤ 인간 지능 쇠퇴의 보상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다. 하지만 첫 문장에서 인간 ‘지능’에 관한 범위가 아니라 인간만의 ‘행위와 특성’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논의 범위가 다르다.

04. 빈 칸 앞 뒤 문장에 오는 ‘인과적 표지어(therefore)’에 주목하라

원문해석

슬픔은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손해를 보는 것이 확실한데도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아마도 우리는 스피노자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한 말, 즉 누구든지 후회를 느끼는 자는 ‘두 배 불행하거나 두 배 무기력하다’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이다. Laurence Thomas는 ‘부정적인 감정’(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보이는 감정들인 슬픔, 죄책감, 분개함, 분노와 같은 감정들)의 유용성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랑과 존경심과 같은 그런 기질의 감정에 대한 일종의 진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사실인 기간 내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때때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랑과 존경심의 진실성에 대한 일종의 증거를 제공한다.

선택지 해석

- 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 ② 훨씬 더 행복하다고
- ③ 감정적 손실은 결코 실제일 수 없다고
- ④ 자신에 대한 존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 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04

Grief is unpleasant.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Why** accept it even when the loss is real? Perhaps we should say of it what Spinoza said of regret: that whoever feels it is “twice unhappy or twice helpless.” Laurence Thomas has suggested that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s” (emotions like grief, guilt, resentment, and anger,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to believe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lies in their providing a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need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it is true that one loves or respects. One might **therefore** sometimes **suspect**, in the **absence** of the positive occurrent feelings, that _____. At such times, **negative emotions** like grief offer a kind of testimonial to the authenticity of **love or respect**.

*dispositional: 성향인 **testimonial: 증거

- ① one **no longer** loves
- ② one is much happier
- ③ an emotional loss can never be real
- ④ respect for oneself can be guaranteed
- ⑤ negative sentiments do not hold any longer

필수어휘

grief 슬픔	sentiment 감정, 정서	occurrent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연의
helpless 무기력한	resentment 분개함	suspect 의심을 하다
better off 더 행복한, 형편이 더 나은	guarantee 보장	in the absence of ~가 없는 상태에서
loss 손해	authenticity 진실성, 진정함	testimonial 증명

HOW & WHY?

30초 논리

해석 3단 논리

슬픔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없으면 더 행복할텐데 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부정적 감정이 사랑과 존경심 같은 감정의 진실성을 보장해주는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과 존경심이 진실인 기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과 존경심이 진실임을 보장해주는 증거가 된다.

빈 칸 앞 문장 부분에 ‘그러므로(therefore)’라는 인과적 표시어가 등장한다. ‘그러므로’는 앞 문장에 대한 ‘결과 혹은 결론’을 이어갈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이어질 문장의 범주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범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했다. 따라서 영어 성적이 좋지 않다.’ 라는 문장만이 성립될 수 있다. ‘영어 공부와 영어 성적’만이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빈칸 앞 문장에서 ‘사랑과 존경심이 그 기간 내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제시했고, 그 범위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면, ‘사랑과 존경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특히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의심할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존경심’이라는 범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답 SPECIAL

①번 선택지만 부정적인 감정(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이나 사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어서, 논리적 범주가 쉽게 구별이 된다. ‘행복하다 = 감정적 손해는 실재가 아니다 = 존경심 보장 = 부정적 감정 지속 되지 않음’ 따라서

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빈 칸 앞문장의 전제가 ‘사랑 혹은 존경심의 부재’ 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는 서술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오답

② 훨씬 더 행복하다

빈 칸 뒤에 이어지는 ‘의심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행복’이라는 긍정의 단어가 올 수 없다.

③ 감정적 손해는 결코 실재일 수 없다

앞 전제 문장의 ‘사랑과 존경심’의 긍정적 감정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해 감정적 손해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존경심은 보장될 수 있다

빈 칸 뒤에 이어진 ‘의심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존경심 보장’이라는 긍정의 단어 서술이 불가능하다.

⑤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빈 칸 뒤에 이어지는 ‘의심하다’와 연결지어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올 수 없어 정답이 될 수 없다.